

무안군사회복지관 후원물품 '멋대로 썼다'

복지관 관장 개인 품위유지 용도로 사용 등 관리 허술 직원들에 수령증 사인 강요... 기준 무시 관장 채용도 논란

무안군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 후원물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이 복지관은 비리사실이 들로나자 책임소재를 떠넘기기 위해 뒤늦게 직원들에게 물품 수령을 확인하는 사인을 강요하기도 했다.

21일 광주일보가 확보한 후원물품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와 복지관이 최근 공개한 2018년 결산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상당 부분이 바뀌어 있었다.

일상적으로 복지관에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후원물품 담당자가 접수해서 관리하고 복지관 내 사법별로 필요하면 배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자들이 보내준 후원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목적에 맞지않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관장 독단으로 처리하거나 빈번하게 개인의 품위유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관장이 지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물품의 금액은 2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각 사업별 담당자가 알지도 못한 항목을 만들어 수령증에 사인을 강요하는 등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황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복지관 한 관계자는 "관장의 강요로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품목에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물품에만 수령증에 사인을 하고, 목적에 맞지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사인을 거부하면 다른 담당자에게 넘겨 사인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관에 물품을 후원한 A씨는 "진정으로 어렵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후원물품이 복지관장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복지관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벌어진 일이다"며 "앞으로는 꼼꼼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이 후원자들이 보내준 후원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목적에 맞지않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전경.

이번 사건과 별도로 복지관장이 특별채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복지관은 2016년 10월부터 초당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왔는데 보건복지부(시행 2005. 1. 1) 사회복지시설 중사자 관리 운영규정에 의하면 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은 공개채용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관장만은 특별채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초당대 관계자는 "관장채용은 본인이 업무를 맡기전 일들이라 잘 모르겠다"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소외된 이웃 챙기는 따뜻한 사람들 영광 신광면사무소·봉사대원, 주민 머리손질 등 재능기부

함평군 신광면(면장 장경훈)은 최근 '행복을 주는 사람들' 봉사대와 함께 지역 주민 대상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00여명의 봉사대는 신광초등학교 새빛관을 방문해 의료진료, 이·미용, 장수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복지취약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기공사, 보일러 수리, 도배 및 장판교체 등 주거 수선 활동도

펼쳐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봉사활동 중에는 봉사대가 준비한 곰탕 550그릇과 신광면 새마을 부녀회와 번영회에서 준비한 다과가 지역민들에게 제공됐다.

장경훈 신광면장은 "주위에 이런 따뜻한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아직 살 만한 것 같다"며 "행정에서도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산림·도로 경관 해치는 칙덩굴 '애물단지'

영광군, 가로수 등 잇단 피해에 제거 총력전

구황식물이었던 칙이 산림과 도로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지자체가 제거에 애를 먹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산림과 가로수에 피해를 주고 도로까지 줄기를 뺏어 번식하는 칙덩굴을 완전 제거하기 위해 '칙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군은 5-8월 국도 22호선과 백수해안도로를 중심으로 경관을 해치는 칙덩굴 제거를 위해 신약 살포 등을 포함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주요도로변 칙덩굴 완전제거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임도주변 칙 제거에 집중할 방침이다.

칙덩굴은 줄기와 종자를 통한 강한 번식력과 왕성한 생장력으로 인해 1회 작업으

로는 제거가 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칙을 완전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반복 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동안 칙덩굴을 반복 제거한 결과 영광지역 국도 22호선에 가로수로 심어진 배롱나무는 칙덩굴 피해로부터 벗어났다.

영광군은 칙덩굴 완전제거를 위해 작업 후 다시 발생한 칙을 2020년까지 반복 제거할 예정이다. 올해 칙 제거 사업에는 칙에 특화된 신약을 살포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지역의 주요 경관자원인 국도 22호선 배롱나무와 백수해안도로, 태청산 임도의 경관향상을 위해 칙덩굴 제거사업은 필수"라며 "칙덩굴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영광군-서울 중랑구 도농상생 추진

'공공급식 업무협약' 체결

영광군이 서울 중랑구와 도농상생을 추진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서울 중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김준성 영광군수와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 양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중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산지 지자체와 서울 자치구가 1대1로 연결해 자치구와 산지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로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와 매칭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광군은 중랑구와 직거래시스템을 이용해 별도의 유통절차 없이 서울 중랑구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신선하고 안전한 영광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을 직접 공급해 지역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신안군, '1004섬 시티투어버스' 운영

신안군이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 개통을 맞아 순환형 '1004섬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한다.

'1004섬 시티투어버스'는 목포역에서 매주 금·토·일요일 주 3일, 오전 9시30분에 출발해 7시간 여정으로 하루 1회 운영된다.

요금은 성인 1만원, 장애인·군인·경로·청소녀는 5000원이며, FREE 패스권(2만원) 한장이면 3일동안 이용가능하다. 입장료와 식비는 별도이다.

또 여행에 도움을 줄 문화관광해설사도 함께 동승해 신안 섬여행을 알차게 채

워준다. 코스는 목포역을 출발해 천사대교를 지나 퍼플교(반월·박지도)-김환기 고택(점심, 자유식)-분계 여인송송-에로스 서각 박물관-목포역(오후 5시)으로 돌아온다.

신안군 관계자는 "천사대교가 개통돼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하기란 쉽지 않다"며 "천사대교 개통과 함께 1004섬 시티투어버스가 신안군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신안 암태도~비금도 여객선 야간에도 운항

신안 암태도와 비금도 간 여객선이 야간에도 운항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몰 이후 일출 이전 여객선 운항이 금지됐는데 이 규정이 풀려 섬 주민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나아졌다.

야간운항 여객선은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암태 남강항과 비금 남강항을 하루 3차례 왕복 운항한다. 남강항과 가산항은 항로 거리 12.5km로 운항시간은 약 40분이다.

신안 천사대교 개통에 이어 서울 일일

생활권 버스 운행과 함께 야간 뱃길도 열려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신안군은 야간운항을 관내 다른 섬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좌-정산-신의 간 야간운항과 권역별 야간운항도 추진해 밤에도 주민들이 자유로이 섬과 육지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QR code and text: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Large advertisement for 'Green Gong Prime Ever 120' featuring a box of the product, a woman's face, and promotional text. Text includes: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 프라임에버 120',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Green Gong Prime Ever 120'.